

4·11총선 여론조사-광주

광주 서구를 야권연대나 새누리나 최대 관심사

민주 무공천... 양형일·박주선 2강 속 이병훈 맹추격

장병완 50%대 지지율 독주... 통합진보 이민원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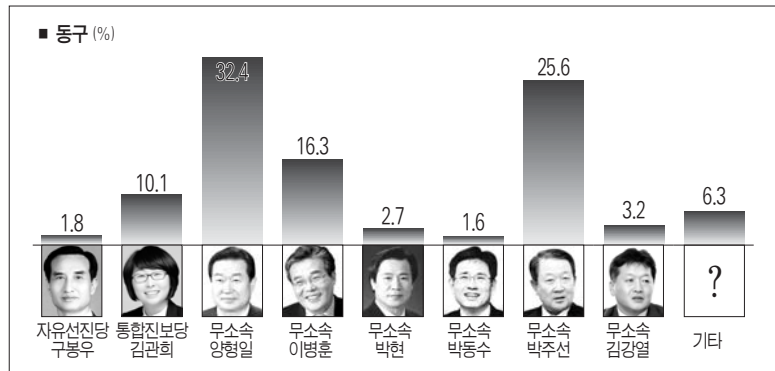
동구

광주 동구는 국민경선 과정에서 투신사태가 일어나면서 민주당이 무공천지역으로 선언하자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의 각축장이 됐다.

제19대 총선 지지 후보를 묻는 질문에 무소속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이 32.4%의 지지율로, 25.6%를 얻은 무소속 박주선 현 의원을 오차범위를 조금 벗어난 6.8%포인트 앞서며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아시아문화추진단장을 지낸 무소속 이병훈 후보가 16.3%, 광주청년센터 정책국장인 통합진보당 김관희 후보 10.1%,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를 지낸 무소속 김강열 후보 3.2%, 청와대 공보국장 출신의 무소속 박현 후보 2.7%, 축산경제신문 호남취재본부장인 자유선진당 구봉우 후보 1.8%, 빛고를 나눔문화연대 동구지회 부회장이자 무소속 박동수 후보 1.6%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양형일·박주선 후보가 박



빙의 접점을 펼쳐던 지난 1월 20일과 2월 15일의 광주일보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두 후보는 0.2%포인트, 1.6%포인트 차로 1위를 주고 받았다. 투신사태가 벌어진 지난달 26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양형일 후보가 최고 나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박주선 후보도 투신 사태 후 한 달여 동안 선거운동을 거의 하지 못했고 지지자들의 잇단 구속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도 불구하고, 25.6%의 지지율을 기록해 선전할 것으로 평가된다.

3위의 이병훈 후보는 8.2%(1월 20일)→11.1%(2월 15일)→16.3%로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무소속 김강열·박현·박동수, 자유선진당 구봉우 후보도 하위권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선두권을 위협하기에는 힘이 부치는 모습이다.

통합진보당 김관희 후보는 자신의 정당 지지율(7.0%)보다 높은 10.1%의 지지율을 기록, 가능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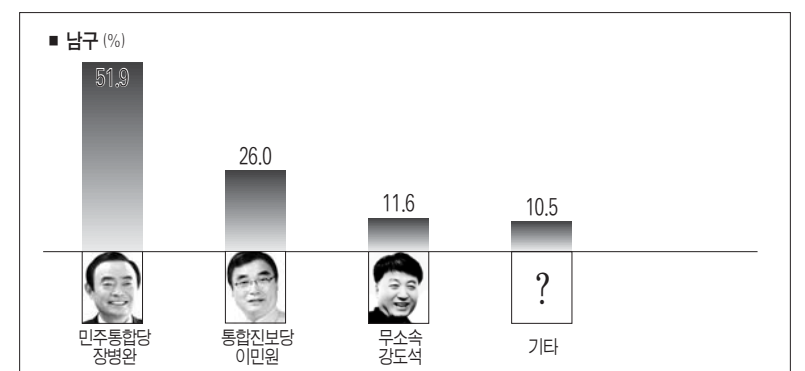
남구

4·11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에서 민주통합당 공천장을 따낸 장병완 후보가 50%대의 지지율로 크게 앞서가고 것으로 나타났다.

제19대 총선 가상대결에서는 장 후보가 51.9%의 지지율로 26.0%를 기록한 통합진보당 이민원 후보를 25.9%포인트 앞섰다. 이어 무소속 강도석 후보는 11.6%를 차지했으며, 기타는 10.5%였다.

장 후보의 지지도는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경선 결과 발표 이후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20일과 2월 15일 광주일보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장 후보의 지지도는 각각 25.9%와 20.3%로 조사됐다.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민주당 국민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표심이 장 후보 쪽으로 쏠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당 지지도를 묻는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55.7%, 가장 높았으며 이어 ▲통합진보당 11.6%, ▲새누리당 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16.8%였다.



장 후보는 지역별·연령별·성별 응답자 분석에서도 고공 행진을 했다.

연령별 분석에서 장 후보는 19세~60세 이상에서 36.2%~65.7%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13.6%~37.8%, 강 후보는 8.5%~14.9%를 보였다.

지역별로도 장 후보는 49.6%~53.8%를 기록, 이 후보(24.0~28.3%)·강 후보(9.7%~13.7%) 보다 2~3배 이상 높은 지지

율을 보였다. 성별 분석에서도 장 후보는 남성(51.8%)·여성(52.0%)의 고른 지지를 얻어 이 후보(23.9%·27.9%), 강 후보(14.9%·8.6%)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공천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50.4%가 '잘했다'고 평가한 점을 감안하면, 장 후보의 독주체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잘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3%였으며, 기타는 12.3%로 파악됐다.

민주 유일 여성 공천지역... 무소속 후보와 각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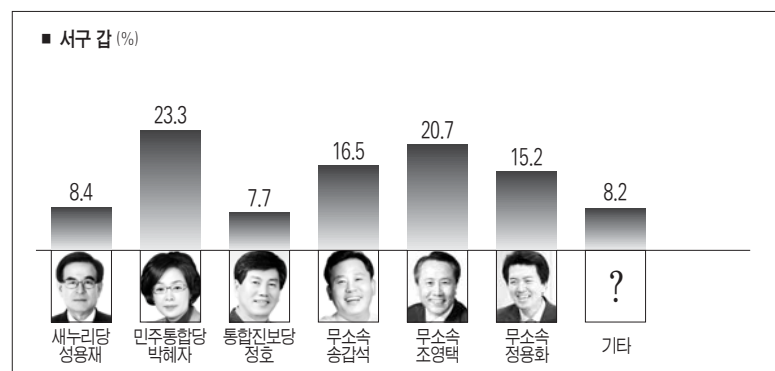
서구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한 민주통합당 여성후보가 출마한 광주 서구는 '민주통합당 대 무소속' 후보 간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성후보 전라지역으로 일방 선전된데다 당 지도부가 한 달 이상 우왕좌왕 공천 행보를 보이면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각한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 지역은 민주당의 공천만족도가 광주 8개 선거구 중 가장 낮았다.

제19대 총선 지지 후보를 묻는 질문에 23.3%의 지지를 얻은 호남대학교 화학 출신의 민주당 박해자 후보와 20.7%의 지지를 얻은 조영택 현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점을 펼쳐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지지를 격차는 2.6%포인트에 불과했다.

뒤를 이어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무소속 송갑석 후보가 16.5%, 청와대 연설 기록비서관을 지낸 무소속 정용화 후보 15.2%



2%, 새누리당 광주시당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송용재 후보 8.4%, 광주전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통합진보당 정호 후보 7.7% 순으로 나타났다.

접점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8.2%인 부동층의 표심이 당락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25일 뒤늦게 출마선언을 한 박해자 후보는 2월20일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 6.3%의 지지율에 머물렀으나 민주당 공천을 확정지으면서 당 지지층을 끌어안으며

일거에 선두로 올라섰다.

조영택·송갑석·정용화 후보는 오차범위 내의 지지를 격차로 2~4위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무소속 연대나 후보단일화가 시도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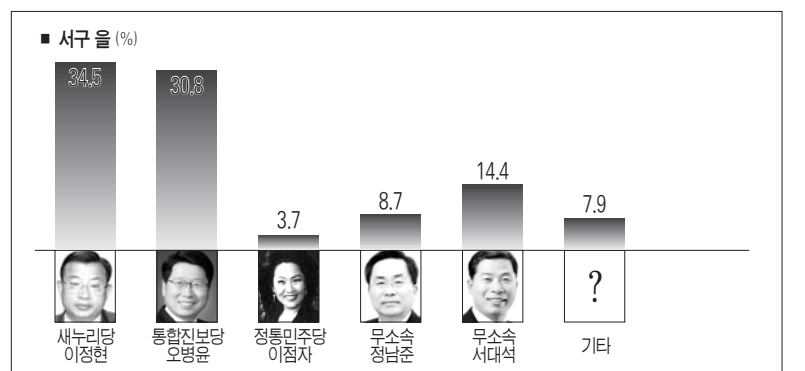
이들은 지난 두 번의 본보 여론조사에서도 1~3위를 주고받으며 혼전을 벌였다. 1월 20일 조사에서는 정용화(23.0%)·송갑석(22.3%)·조영택(19.8%), 2월15일 조사에서는 송갑석(29.9%)·조영택(17.2%)·정용화(11.2%) 후보 순이었다.

이정현-오병운 3.7%P차... 오차범위내 접전

서구

최근 전국적으로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으로 급부상한 선거구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최측근인 이정현 비례대표 의원이 27년 만에 새누리당 소속의 호남 지역국회의원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정현 후보가 34.5%의 지지를 얻어 30.8%에 그친 민노당 사무총장 출신의 통합진보당 오병운 후보를 오차범위 내인 3.7%포인트 앞서며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무소속 서대석 후보 14.4%,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 무소속 정남준 후보 8.7%, 수원과학기술대 겸임교수를 지낸 정몽민 민주당 이점자 후보 3.7%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의 이번 총선 지역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선두로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현 의원은 4년 동안 '호남 예산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번 총선에 도전장을 던진 상태다.



이 지역은 야권연대 지역으로 묶이면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통합진보당의 후보가 야권연대 후보로 나서 유권자의 반응이 주목돼왔다. 더욱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서대석 후보가 반발, 무소속 출마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분산된 것도 이정현 후보의 선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지난 1월20일(10.6%), 2월15일(3.3%) 본보 여론조사에서는 월등한 기록을 보이지 않았지만 민주당 김영진 현 의원이 공천 탈락 후 불출마를 선언하고 야권

연대 지역으로 분류된 후 다른 군소 후보들이 정리되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 1위까지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주노동당 광주시장 후보로 나선 바 있는 오병운 후보는 인지도와 지명도 면에서 현역 의원에 뒤지지 않아 진보통합당의 첫 광주 국회의원을 노리고 있다. 이 후보는 19/20대(33.2%), 50대(42.9%), 60대(42.2%)에서, 오 후보는 30대(40.2%), 40대(33.9%)에서 각각 선두를 달렸다. (총선 특별취재단)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통풍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90204-중-4738호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매매



사업명	(주)혜주주거전시관 및 사옥신축공사		
사업장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5-1번지		
대지면적	2,411.20㎡ (729.39평)		
용도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준주거지역		
건폐율	59.53%(법정: 60%)	용적율	478.73%(법정: 480%)
건 모	지하0층 지상9층	최고 높이	55.50m
건축면적	1,435.47㎡ (434.23평)	건축연면적	11,543.18㎡ (3,491.81평)
주차대수	80대(법정 72대) : 본관 24대, 부설주차장 56대 부설주차장 : 대지면적 201.3평, 연면적 1,233.4평, 지상3층 철골조		
승용승강기	17인승(4대), 15인승(1대) 총 5대		
에스캐레이터	상, 하 전용왕복 에스캐레이터 시공 : 1층~7층까지 설치		
용도	근린생활시설(금융, 소매점, 일반음식점), 문화집회시설 및 업무시설		

층별 면적 개요

층별	면적	평	총고	용도
1층	1,374.92	415.91	4.8m	근생, 업무시설, 기계실
2층	1,346.28	407.25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3층	1,355.08	409.91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4층	1,359.78	411.33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5층	1,360.28	411.48	3.75m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층	665.60	198.32	3.75m	업무시설(사무소)
7층	1,375.18	415.99	4.8m	업무시설(사무소)
8층	1,385.18	419.02	4.8m	업무시설(사무소)
9층	1,330.88	402.59	4.5m	업무시설(사무소)
소계	11,543.18	3,491.81		

장부가격(감정가)	14,000,000,000원
매매예정가격	12,000,000,000원
현공정율	약 85% 진행
적용가능용도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휘트니스센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집회시설 병원등 최대층고기 7.5m이므로 다양한 건축물의 시설군, 용도군 도입가능 함

문의처 : 010-3625-6984